

## 모의 과보호와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 및 청소년 걱정과의 관계: 지각된 통제의 매개효과

이 민 경

한양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 은 정<sup>†</sup>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모의 과보호, 행동억제기질 및 지각된 통제가 청소년의 걱정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선행 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모의 과보호 및 행동억제기질이 지각된 통제를 매개로 걱정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매개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매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등학생 30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의 과보호와 행동억제기질이 지각된 통제의 매개를 통해 청소년의 걱정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 매개 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과보호와 행동억제기질이 걱정 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 연구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모의 과보호, 행동억제기질, 지각된 통제, 걱정 증상, 매개효과, 청소년

---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은정 /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번지  
Fax : 031-219-2195 / Tel : 031-219-2737 / E-mail : kej@ajou.ac.kr

현대인들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민과 걱정이 따르기 마련인데, 나이와 발달 시기에 따라 걱정의 주제는 다르지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로 학업 수행, 진로, 또래 관계와 관련된 복잡한 인지적 및 정서적 과제들을 마주하게 된다. 이로 인해 아동기보다 걱정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Kertz & Woodruff-Borden, 2011). 그런데 이 시기에 과도하지 않은 걱정은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지만, 과도하게 걱정을 하게 되면 의식 속으로 침투하는 생각을 통제 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한 불편감과 인지적 혼란, 흥미 상실 등을 경험하게 된다(Borkovec, Ray, & Stöber, 1998).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상적인 인지 과정인 걱정이 과도해지며 통제할 수 없다고 느껴지면 개인의 생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과 불안을 유발하게 됨으로써 병리적인 범불안장애로 발전하게 된다(신여운, 현명호, 2004; Olatunji, Scottenbauer, Rodriguez, Glass, & Arnkoff, 2007; Muris, Meesters, & Gobel, 2001).

범불안장애(Generalized Anxiety Disorder)는 DSM-III(1980)에 잔여적인 범주(다른 불안장애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만 진단이 내려질 수 있음)로서 처음 나타났으며, DSM-III-R(1987)과 DSM-IV(1994)에 와서야 ‘과도한 걱정’이라는 자체의 핵심 진단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1980년대부터 걱정의 본질과 기능을 잘 이해하는 것이 범불안장애에서 역기능적인 인지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걱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Borkovec, Ray, & Stöber, 1998).

범불안장애는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장애로, 불안장애를 경험하는 많은 성인들은 그들의 걱정이 아동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하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청소년의 걱정 증상에 대한 연구들 중 25%가 과도하고 통제 불가능한 걱정을 보고하였다(Laugesen, Dugas, & Bukowski, 2003). 뿐만 아니라 걱정 수준이 높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도 과도한 걱정 증상이 청소년 후기부터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Fournier, Freeston, Ladouceur, Dugas, & Guvin, 1996). 이로 미루어 볼 때 많은 청소년들이 높은 수준의 걱정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청소년의 걱정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걱정 증상과 관련된 변인 및 기제를 이해하는 연구는 청소년기 적용 뿐 아니라 성인기 불안장애의 예방을 위해서도 중요한 치료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걱정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그 기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발달정신병리 이론에서는 부모의 양육 방식, 기질적 요소, 그리고 인지적 특성이 오랜 시간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여 아동, 청소년 그리고 성인의 불안 장애와 걱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Kertz & Woodruff-Borden, 2011). 이로 볼 때, 청소년기의 걱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이고 기질적이며 인지적인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모의 양육방식은 아동이 세상을 지각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배우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가족연구에서 불안 장애는 가족 구성원에 의해 강화

된다고 하였으며(Beidel & Turner, 1997; Last, Hersen, Kazdin, Francis, & Grubb, 1987), Turner, Beidel 과 Costello(1987)는 불안 장애를 가진 부모의 아동이 불안 장애를 가지지 않은 부모의 아동보다 불안 장애로 발전할 확률이 7배나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문제 행동과 정신 병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Barber, 1996; Baumrind, 1991; Kretchmar & Jacobvitz, 2002; Rey & Plapp, 1990),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 중에서 통제와 과보호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중 불안과 더 긴밀하게 관련됨을 확인하였다(김혜영, 2000; 문경주, 오경자, 2002; Ballash, Leyfer, Buckley, & Woodruff-Borden, 2006; McLeod, Wood, & Weisz, 2007). 그런데 그동안은 부모의 과보호가 아동에 대한 애정이라 여겨 관심을 두지 않고 주로 학대나 무관심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최근에는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정은영, 장성숙, 2008).

과보호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Parker와 Lipscombe(1981)는 부모의 과보호를 아동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험을 통제하기 위한 부모의 과도한 개입이라 정의하였고, 과보호는 아동이 독립적으로 환경을 다루는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위협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Gerlsma, Emmelkamp와 Arrindell(1990)은 과보호를 부모가 아동의 환경을 제한하고 참견하는 정도라 정의하였다. Thomsgard와 Metz(1997)도 과보호를 부모가 아동의 발달 단계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도와주는 과잉 불안이라 설명하였고, 국내에서는 장대운(1993)이 부모가 자녀의 연령이나 발달 정도에 맞지 않게 지나친 보호와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부모의 과보호가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Parker와 Lipscombe(1981)가 불안 장애로 진단된 외래 환자 성인 50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조사한 결과 주로 과보호적이고 돌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uris, Meesters, Merchelbach와 Hulsbeck(2000)은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육 행동과 걱정 증상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연구 결과 청소년은 거부적이며 불안정한 양육행동을 경험하면 걱정 증상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arber와 Harmon(2002)은 높은 수준의 과보호는 아동이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는 능력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고립 및 자존감 저하를 비롯한 내현화와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한편, Baumrind(1967)는 특히 어머니의 양육 방식이 아동의 불안과 관련됨을 주장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유능한 아동의 어머니는 “자율적”인 행동을 보이는 반면에 불안한 아동의 어머니는 아동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권위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즉, 아동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특성이 아동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아동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특성은 모의 과보호적인 양육방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Moore, Whaley와 Sigman(2004)은 모의 과보호가 높은 수준의 아동기 불안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김혜영(2000)은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 행동이 자녀들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그 결과, 모의 과보호가 초기 청소년의 내현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

구들을 살펴보면, 모의 과보호가 자녀의 걱정 증상 및 불안과 관련된 중요한 환경적 변인이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불안 및 걱정을 예방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환경적인 요인인 모의 과보호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기질 변인을 살펴보면, 가장 안정적인 기질 변인은 행동억제기질이다. 행동억제기질은 초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처벌'이나 '위협'과 같은 불안 관련 단서들에 반응해서 불안을 경험하고 현재 진행 중인 행동을 멈추고 다른 위협이나 위협 단서들을 찾기 위해 환경을 조사하도록 유도하는 동기체계이다(김교현, 김원식, 2001). 이로 인해 행동억제기질이 높으면 유아기와 초등학생 시절에 친숙하지 않은 상황이나 사람 또는 대상으로부터 철회하거나 상호작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Fox, Henderson, Rubin, Calkins, & Schmidt, 2001), 청소년 시절에 불안 장애가 발달하는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ronis-Tuscano, Degnan, Pine, Perez-Edgar, Henderson, & Diaz, 2009). 특히 행동억제기질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불안관련 단서들에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여 현재진행중인 행동이나 계획했던 행동을 그만두게 하는 특성을 지니게 되는데, 지나치게 높은 행동억제기질은 새로운 상황이 주어질 때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대한 경험을 적게 할 수 있다. 또한 높은 행동억제기질을 가진 아동은 청소년이 되어서도 행동억제기질이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Kerr, Lambert, Stattin, & Klackenberg-Larsson, 1994; Biederman, Hirshfeld-Becker, Rosenbaum, Herot, Friedman, Snidman,

Kagan, & Faraone, 2001), 아동기의 높은 행동억제기질은 청소년 및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지지하는 선행 연구는 5세~8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행동억제기질과 과도한 불안, 회피 그리고 공황 장애와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다(Biederman, Rosenbaum, Bolduc-Murphy, Faraone, Chaloff, Hirshfeld, & Kagan, 1993). 연구 결과 행동억제기질은 과도한 불안, 회피와 공황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후 추수 연구 결과 행동억제기질이 높은 아이들이 다양한 불안 장애, 회피 장애, 분리 불안 장애와 광장 공포증으로 발달하는데 더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hang 등(2007)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행동억제기질이 걱정의 많은 부분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고려해볼 때, 행동억제기질은 걱정 증상과 불안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안정적인 기질 변인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린 시절 보호를 덜 받았거나 통계를 과도하게 받았다고 지각하는 성인들은 위협회피 혹은 수줍음과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Eastburg & Johnson, 1990; Richter, Eisemann, & Richter, 2000), 이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기질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아동의 기질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양육행동 또한 아동의 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환경 변인인 모의 과보호 및 기질 변인인 행동억제기질이 청소년의 걱정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행동억제기질이

걱정 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다른 변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그 구체적인 기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모의 과보호와 행동억제기질이 청소년의 걱정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각된 통제(perceived control)의 역할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Barlow(2002)의 불안 모델 이론에서는 상황과 환경에서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개인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이와 같이 지각된 통제는 불안 관련 사건들을 조절하는데 있어 스스로의 능력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Weems, Silverman, Rapee, & Pina, 2003). 몇몇 연구자들은 어린 시절에 통제 불가능한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형성된 심리적 취약성이 불안 장애의 발달에 어떤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Chorpita, Brown, & Barlow, 1998).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지각된 통제와 불안 장애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불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건을 더 통제 불가능하다고 지각하거나 전반적 내적 통제 수준이 더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박기환, 최영희, 윤혜영, 2003; 신현균, 원호택, 1991; 조용래, 김은정, 2004; Clottie, Heimberg, Liebowitz, & Gitow, 1992; White, Degnan, Fox, McDermott, & Henderson, 2011), 지각된 통제와 걱정 증상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uhr & Dugas, 2006). 김지혜와 현명호(2011)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지각된 통제가 걱정 증상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인지적 회피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걱정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각된 통제와 걱정 증상간의 관계는 지각된 통제와 불안 간의 관계

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Davey, 1994; Zebb & Beck, 1998). 또한 일련의 실험연구에서는 통제 수준을 증가시킬 경우 불안 증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anderson, Rapee, & Barlow, 1989; Zvonlensky, Lejuez, & Eifert, 1998).

몇 개의 선행연구는 부모의 과보호가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지각된 통제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았다. Chorpita, Brown과 Barlow(1998)는 과보호를 하는 가족 환경이 아동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각된 통제가 매개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이소미(2002)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존감과 통제 소재를 매개 변인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의 과보호가 높았다고 지각하는 자녀는 내적 통제보다 외적 통제를 하게 되어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모가 자녀를 과보호하면 자녀는 스스로 주변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할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지각된 통제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걱정 증상과 불안의 위험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행동억제기질과 지각된 통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agan, Reznick과 Snidman(1987)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익숙하지 않고 인지적으로 도전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생리적인 특성과 심리적 특성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행동억제가 높은 아동들은 생리적으로 각성되어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낯설고 도전해야 하는 상황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기질적으로 회피를 하면 부정적인 자극을 경험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동시에 대처 전략을 발달시

킬 기회마저 줄어들게 된다. 이들의 이러한 대처 전략 발달의 실패는 지각된 통제를 감소시키게 되고 이는 다시 회피 반응을 유도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Windsor, Anstey, Butterworth와 Rodgers(2008)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행동억제기질이 부정적 사건과 지각된 통제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밝혔다. 즉, 행동억제기질은 안정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행동억제기질이 높아 새롭고 낯선 상황에서 문제해결전략을 습득하지 못하면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발생하는 예상치 못하는 사건들에 더 위축되고 걱정 증상과 불안 장애로 발전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환경적 변인인 모의 과보호, 기질적 특성인 행동억제기질 및 인지 변인인 지각된 통제 각각이 걱정 증상 및 불안 장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었다. 첫째, 모의 과보호와 행동억제기질 및 지각된 통제가 걱정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기제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모의 과보호와 행동억제기질 및 지각된 통제가 불안 및 걱정 증상에 대해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연구(김지혜, 현명호, 2011; 신민진, 하은혜, 2010)는 있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모의 과보호와 행동억제기질, 지각된 통제, 걱정 증상 간의 관계는 탐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각각의 변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 걱정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둘째, 최근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걱정 증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적인 대처 방식과 같은 인지적 기제를 밝힌 연구들은 발표되고 있으나(설승

원, 오경자, 2008; 오영아, 정남운, 2011; 조용래, 2008), 아직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걱정 증상의 기제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달적으로도 걱정 증상이 증가하는 시기에 놓여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의 과보호 및 행동억제기질과 걱정 증상과의 관계를 지각된 통제가 매개하는지 검증하여, 청소년의 걱정 증상 및 그 기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구체적 개입에 대한 중요한 치료적 시사점을 제공하려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모형은 매개 모형이다. 첫 번째 연구 모형은 완전 매개 모형으로 지각된 모의 과보호와 행동억제기질이 지각된 통제를 거쳐 걱정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만을 포함하고 있는 모형이다. 두 번째 연구모형은 부분 매개 모형으로, 위의 간접 경로뿐 아니라, 지각된 모의 과보호와 행동억제기질이 걱정 증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를 모두 포함하는 모형이다.

구조 방정식 모형 접근을 사용하여 모형을 검증할 때에는 한 가지 이상의 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적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 모형을 설정하여 비교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Breckler, 1990).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쟁적인 대안 모형으로 증상 모형을 설정하고 그 적합도를 연구 모형인 매개 모형들과 비교하였다. 증상 모형은 걱정 증상이 부모의 과보호와 행동억제기질, 지각된 통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Lewinsohn, Steinmetz, Larson과 Franklin(1981)의 연구에서 우울한 인지가 우울증의 원인이기보다는 결과라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설정하였다. 연구 모형은 그림 1, 2와 3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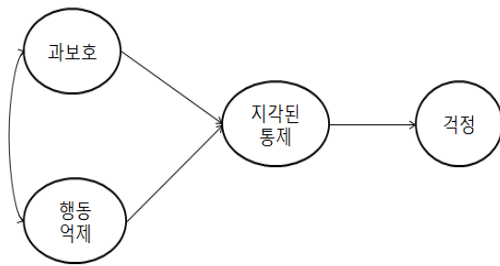


그림 1. 완전 매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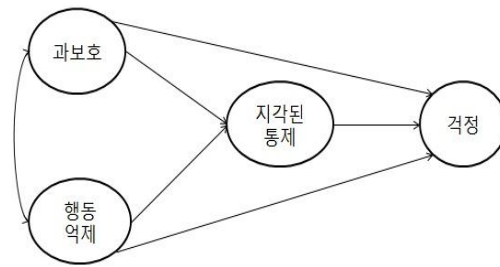


그림 2. 부분 매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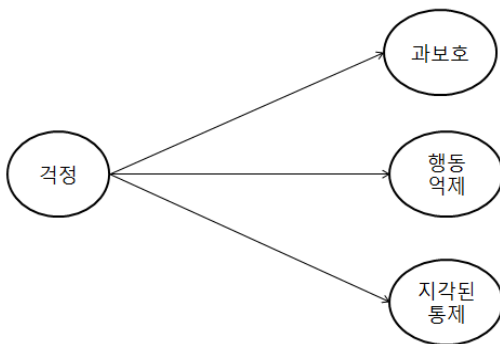


그림 3. 증상 모형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교사를 통하여 각각 326

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306명(남학생 211명, 여학생 95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들의 전체 평균 연령은 16.92세( $SD=0.26$ )였으며, 연령 범위는 만 16세에서 17세까지였다. 설문지는 모의 과보호 척도, 행동억제척도, 불안통제 척도, 걱정 척도를 포함하였다.

### 연구 도구

#### 모의 과보호 척도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정은영(2008)이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만 12세-19세)을 대상으로 개발한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과보호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위 요인은 과잉기대 5문항(부母的 과잉 교육열로 인한 지나친 기대), 자율성 저해 5문항(지나친 간섭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과잉통제 5문항(부母的 엄격한 통제와 관리), 과잉보호 및 불안 5문항(유아 취급하고 불안해하며 지나치게 보호하고 돌봐줌), 과잉애정 5문항(지나친 접촉과 허용, 부모자녀 일체감 내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은영(2008)의 연구에서 보고한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는 하위 척도별로 각각 0.81, 0.85, 0.78, 0.83, 0.65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는 .86이었다.

#### 행동억제체계

청소년의 행동억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Carver와 White(1994)의 척도를 김교현과 김원식(2001)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한국

판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BAS/BIS)체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점 척도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동억제체계 하위 척도만을 분석에 포함시켰고, 행동억제체계(BIS)는 하나의 단일 척도로 되어있다. 김교현과 김원식(200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 연구를 실시한 결과, 비교적 높은 예언타당도와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보였으며 행동억제체계(BIS)의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는 .8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0이었다.

#### 한국판 불안통제 질문지

이 척도는 불안관련 사상에 대한 지각된 통제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Rapee, Craske, Brown, & Barlow(1996)가 개발한 총 30개 문항의 자기보고형 척도이다. 조용래와 김은정(2004)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였고, 연구 결과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한국판 불안통제 질문지(Anxiety Control Questionnaire, ACQ)는 '불안관련 사상에 대한 통제 불가능'과 '불안 관련 사상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 등 2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검자들로 하여금 각 문항내용에 대해 자신의 평소 신념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 정도를 6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총 30개 문항 중 18개는 반대로 채점하도록 되어 있고 총점이 높을수록 지각된 통제의 정도가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조용래와 김은정(2004)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는 .85였다.

#### 펜실베이니아 걱정증상 질문지

이 척도는 Meyer, Miller, Metzger와 Borkovec(1990)이 걱정의 빈도와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PSWQ)하였으며, 16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형 5점 척도이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걱정이 많음을 의미하고, 56점 이상이면 범불안장애의 진단기준에 적합한 점수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원과 민병배(1998)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이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는 .91이었다. 본 연구의 통계 방법 상,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 걱정 잠재 변수를 2개의 표시 변수로 나누어 측정 모형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는 .91이었다.

#### 자료 분석

모의 과보호, 행동억제기질, 지각된 통제, 걱정 증상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다. 또한 매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의 프로그램인 AMO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모형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공변량 구조 모형에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사용된다. 적합도는 여러 가지 기준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하고,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며, 해석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는 적합도인가를 고려하여, CFI(Comparative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FI와 TLI는 .90 이상이면 양호한 모형이라고 평가하며, RMSEA는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 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 .10 미만이면 보통 적합도, .10 이상이면 좋지 않



은 적합도라고 본다(홍세희, 2000).

### 결 과

####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각각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이 유의미했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은 표 1에 제시하였다. 과보호와 행동억제기질은 걱정 증상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지각된 통제는 걱정 증상과 부적 상관을 보이며, 각 변인들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1	2	3	4
1. 과보호	1			
2. 행동억제기질	.22**	1		
3. 지각된 통제	-.25**	-.29**	1	
4. 걱정	.24**	.43**	-.51**	1

\*\* $p < .01$

####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 변인들이 잠재 변인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측정 모형을 검

증하였다. 모의 과보호, 행동억제기질, 지각된 통제, 걱정 증상 등의 4개의 잠재 변인들이 모형에 포함되었다. 모의 과보호에 대해 5개의 측정 변인과 행동억제기질, 지각된 통제, 걱정 증상 각각에 대해 2개의 측정변인이 모형에 포함되었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해본 결과,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였고,  $\chi^2 = 98.82$ ,  $df = 38$ ,  $NFI = .924$ ,  $TLI = .929$ ,  $CFI = .951$ ,  $RMSEA = .072$ , 잠재 변인에 대한 모든 측정 변인들의 요인계수가 유의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들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완전 매개 모형과 부분 매개 모형 및 증상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를 살펴보면, 완전 매개 모형과 부분 매개 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완전 매개 모형의 모든 경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부분 매개 모형은 모의 과보호와 행동억제기질이 걱정 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증상 모형은 두 개의 매개 모형보다 적합도 지수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따라서 매개 모형이 자료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완전 매개 모형과 부분 매개 모형의 적합도를 직접 비교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차이검증을 한 결과, 완전 매개 모형과 부분 매개 모형간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므로  $\chi^2(2,$

표 2. 전체 집단에 검증된 여러 모형들의 적합도 지수

	$\chi^2$	$df$	TLI	CFI	RMSEA
완전 매개 모형	106.42	40	.926	.938	.074
부분 매개 모형	98.82	38	.929	.951	.072
증상 모형	130.82	41	.903	.928	.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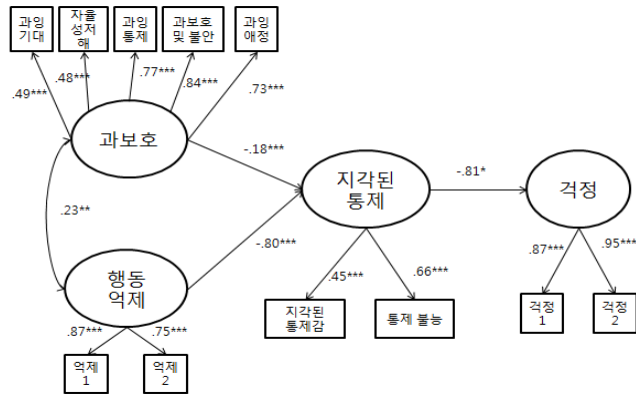


그림 4. 완전 매개 모형과 회귀 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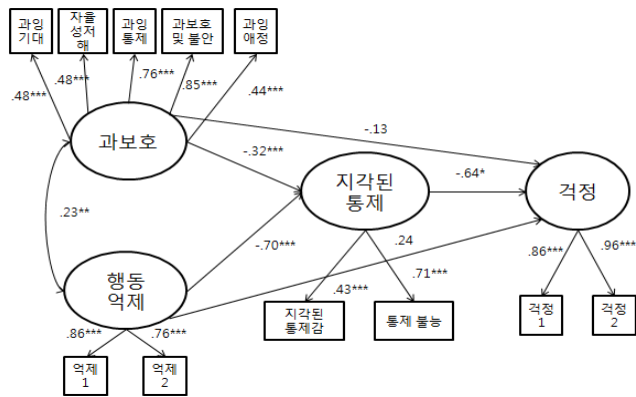


그림 5. 부분 매개 모형과 회귀 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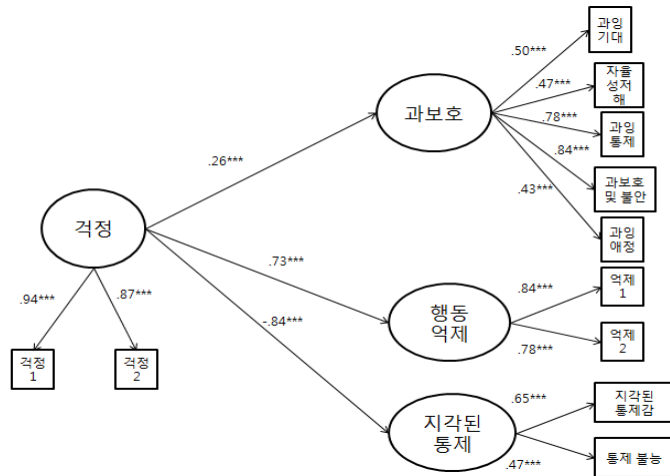


그림 6. 증상 모형과 회귀 계수

$N=306$ )= $7.33$ ,  $p<.01$ , 완전 매개 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더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모의 과보호와 행동억제기질이 걱정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지각된 통제가 완전 매개하는 것이 밝혀졌다. 완전 매개 모형, 부분 매개 모형과 증상 모형의 구조방정식 결과를 그림 4, 5와 6에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모의 과보호 및 행동억제기질과 걱정 증상 간의 관계를 지각된 통제가 매개하는 효과가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 검증법을 수행하였다. 매개 효과는 정상성을 따르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으므로 (Shrout & Bolger, 2002), 최종 선택된 연구 모형에서 Bootstrap 방법을 적용하여 지각된 통제의 매개 효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모의 과보호가 지각된 통제를 거쳐 걱정 증상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면 95%신뢰구간이 (.117~.787)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 효과는 유의도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동억제기질이 지각된 통제를 거쳐 걱정 증상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면, 95% 신뢰구간이 (.845~1.243)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 효과는 유의도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의 과보호 및 행동억제기질이 걱정 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지각된 통제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환경 변인인 모의 과보호와 기질 변인인 행동억제기질이 청소년의 걱정 증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의 과보호 및 행동억제기질과 걱정 증상 간의 관계를 지각된 통제가 매개하는 연구 모형을 수립한 다음,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분석을 사용하여 이 매개 모형들과 다른 대안 모형 중 어느 것이 수집된 자료에 더 적합한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모의 과보호와 행동억제기질과 청소년의 걱정 증상 간의 관계를 지각된 통제가 완전 매개한다고 가정한 완전 매개 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환경적 요인인 모의 과보호와 기질적 요인인 행동억제기질이 직접적으로 걱정 증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스스로 불확실하며 낮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된 통제가 낮을 때 걱정 증상이 증가할 것임을 나타낸다. 한편, 걱정 증상이 모의 과보호와 행동억제기질 및 지각된 통제 각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증상 모형의 경우에 매개 모형보다 적합도 지수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걱정 증상이 모의 과보호와 행동억제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주요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각된 통제가 모의 과보호와 청소년 걱정 증상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한다는 결과는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 방식이 지각된 통제를 통해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Chorpita와 Barlow(1998)의 연구와 일관되고, 모의 과보호와 불안 간의 관계를 통제 소재가 매개 한다는 선행 연구들과도 일관된다(이소미, 2002; Spokas & Heimberg, 2009). 이로 미루어 볼 때, 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인지를 심어줌으로써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

고 느끼게 만든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낮설고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 취약해지고 걱정 증상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초등학교 시절보다 학업적인 측면과 또래 관계에서 더 복잡해지고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 확률이 높아 이 시기에 불안 및 걱정 수준이 증폭되는 시기이므로, 이런 결과는 걱정 증상에 대해 미리 예방적 개입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행동억제기질이 지각된 통제를 매개로 걱정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행동억제기질과 후기 불안 장애 문제를 지각된 통제가 조절함을 확인한 Kagan, Reznick과 Snidman(1987)의 연구와 일관된다. 즉, 낮은 상황에서 위축되고 도전하지 않으려하는 기질적인 요인이 있을 때 회피하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적게 함으로써 불안 장애에 취약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행동억제기질 자체가 직접적으로 걱정 증상에 영향을 미치지보다는 인지 과정을 통해 걱정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청소년의 걱정 증상을 치료하는데 인지 과정에 개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질적으로 행동억제기질이 높은 것은 바꿀 수 없지만, 지각된 통제라는 인지 과정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통해 걱정 증상으로 발달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특히 행동억제기질은 생애 초기에 발견되어지고 몇몇 유전적 요인들과 관련되며 잘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는 기질적 취약성을 가진 청소년들의 걱정 증상 치료에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현 연구 결과는 걱정 증상의 발생 과정을 매우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먼저 걱정 증상은 단일한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방식과 유전적 및 인지적 특성이 함께 연관된다는 선행연구가 지지됨으로써(Vasey & Dadds, 2001; Kertz & Wood-Borden, 2011에서 재인용), 청소년의 걱정 증상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제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즉, 아동의 행동억제기질 수준이 높고 어머니가 아동을 과보호하는 방식으로 양육할수록, 아동은 새롭고 낮은 환경에 처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한받게 되고 이로 인해 걱정 수준이 증가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어린 시절부터 가정 내에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방식과 아동의 높은 행동억제기질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지각된 통제를 낮추고 병리적인 걱정 증상으로 발전하게 됨을 확인했다는 점은, 청소년의 걱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인 기질적 취약성과 양육환경의 취약성 및 인지 과정의 경로를 명료화함으로써 청소년 걱정 증상에 관한 통합적인 이해의 틀을 제공하였고 선행연구들을 확장시켰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청소년의 걱정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한 치료적 시사점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걱정 증상의 핵심 요소인 지각된 통제 부족이 모의 과보호를 통해서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개입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과보호란 애정과 사랑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데, 모의 과보호가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양육 행동에 대

해 알려줄 수 있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걱정 증상을 예방할 수 있겠다. 둘째, 기질적인 측면인 행동억제기질이 지각된 통제에 영향을 미쳐 걱정 증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높은 행동억제기질과 같은 기질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낮은 상황을 두려워하고 회피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걱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질적 성향은 기본적으로 쉽게 변화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의 기질적 성향을 직접적으로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Cloninger & Svrakic, 2000; McWilliams, 1999), 기질적인 취약성의 발현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는 변인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유익하다(유성진, 권석만, 2011). 이와 같은 이론을 근거로 하여 유성진과 권석만(2011)은 기질적 취약성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위험회피 기질 수용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처치 집단이 대조 집단보다 치료 전에 비해 치료 후에 자기 괴리, 체험회피, 상태불안, 주관적 행복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치 집단의 집단 내 비교에서는, 처치 집단이 치료 전에 비해 치료 후에 자기괴리, 체험회피, 상태불안, 부정정서 등이 감소하고 주관적 행복감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위험회피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도 기질을 수용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정신병리적 증상이 감소하고 주관적 행복감이 증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를 본 연구에 적용시켜 본다면, 행동억제기질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기질 수용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걱정 증상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 결과 지각된 통제를 매개로 걱정 증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환경적 혹은 기질적으로 불안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도 지각된 통제를 향상시키면 청소년의 걱정 증상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에 걱정 증상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걱정 증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상황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연구가 늘어났다. 이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절히 해결할 수 있다고 지각하면 걱정 증상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하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스스로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지각된 통제 변인이 상황 평가에 대한 대표적인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각된 통제를 향상시킨다면 걱정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지각된 통제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런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 상황에서의 인지적인 대처 능력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후에 취약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제해결 기술훈련, 자기주장성 훈련, 스트레스 대처 훈련, 이완 훈련과 같은 인지행동치료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방향을 논의하겠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서울소재 고등학교 2학년의 청소년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른 집단으로 일반화 시키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기의 진로 문제와 대입과 같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어떤 연령을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가 청소년의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신이 지각하는 모의 양육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지각된 양육방식만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모의 양육방식과 모가 지각하는 자신의 양육방식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Affrunti & Ginsburg, 2012),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변인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추후에는 청소년이 지각한 모의 과보호와 어머니가 지각하는 과보호를 함께 측정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가 재검증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모의 과보호만 측정을 하였고 부의 과보호를 측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록 선행 연구에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자녀들의 정신 병리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나(오동재, 전성일, 장환일, 1993), 부의 과보호도 모의 과보호 못지않게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함께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교현, 김원식 (2001). 한국판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BAS/BIS)척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2), 19-37.
- 김정원, 민병배 (1998). 걱정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및 문제해결방식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심리학회.
- 김지혜, 현명호 (201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및 지각된 통제력이 걱정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회피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4), 1149-1164.
- 김혜영 (2000).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 행동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29-43.
- 박기환, 최영희, 윤혜영 (2003). 인지행동 집단 치료가 개인의 통제 소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사회공포증 환자와 공황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37-138.
- 설승원, 오경자 (2008).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정서 통제감이 걱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문제 해결 지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1), 209-235.
- 신민진, 하은혜 (2010).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59-477.
- 신여운, 현명호 (2004). 병리적 걱정자의 걱정에 대한 신념 및 대처방략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현균, 원호택 (1991). 비합리적 사고와 귀인양식에 있어서 우울집단과 불안집단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269-285.
- 오동재, 전성일, 장환일 (1993).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년의 정신 병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2(6), 896-903.
- 오영아, 정남운 (201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걱정의 관계: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71-691.
- 이소미 (2002).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이 우울

-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 자존감과 통제소재  
를 매개변인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 유성진, 권석만 (2011). 위험회피 기질 수용 프  
로그램의 적용 및 효과: 수용전념치료를  
기반으로. *인지행동치료*, 11(2), 1-21.
- 장대운 (1993). *청소년 부모 교육론*. 서울: 중앙  
적성출판사.
- 장은영 (2008). 과보호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  
구. 카톨릭 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정은영, 장성숙 (2008).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  
니의 과보호 척도 개발: 탐색적 요인분석  
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심리학회  
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293-312.
- 조용래 (2008). 걱정의 통제 불능성/위험에 대  
한 부정적 신념과 시험불안의 관계: 경험  
회피의 매개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891-909.
- 조용래, 김은정 (2004). 한국판 불안통제 질문  
지의 심리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2), 503-519.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  
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ffrunti, N. W., & Ginsburg, G. S. (2012).  
Maternal Overcontrol and Child Anxiety: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Competence.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3(1),  
102-112.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th  
Ed-R.).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TR).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allash, N., Leyfer, O., Buckley, A., & Woodruff-  
Borden, J. (2006). Parental control in the  
etiology of anxiety.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9(2), 113-133.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15-5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low, D. H. (2002). *Anxiety and its disorders: The  
nature and treatment of anxiety and panic* (2nd  
ed.). New York: Guilford.
-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ent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1),  
43-88.
-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ab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 56-95.
- Beidel, D., & Turner, S. (1997). At risk for  
anxiety: I. Psychopathology in the offspring of  
anxiety parents. *Journal of the American*

-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6(7), 918-924.
- Biederman, J., Hirshfeld-Becker, D. R., Rosenbaum, J. F., Herot, C., Friedman, D., Snidman, N., Kagan, J., & Faraone, S. V. (2001). Further evidence of association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social anxiety in children.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10), 1673-1679.
- Biederman, J., Rosenbaum, J. F., Bolduc-Murphy, E. A., Faraone, S. V., Chaloff, J., Hirshfeld, D. R., & Kagan, J. (1993). A 3-year follow-up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behavioral inhibi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2(4), 814-821.
- Borkovec, T. D., Ray, W. J., & Stöber, J. (1998). Worry: A cognitive phenomenon intimately linked to affective, physiological, and interpersonal behavioral proces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2(6), 561-576.
- Breckler, S. J. (1990). Applications of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in psychology.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60-273.
- Buhr, K., & Dugas, M. J. (2006). Investigating the construct validity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its unique relationship with worry.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0(2), 222-236.
- Carver, C. S., & White, T. L. (1994). Behavioral inhibition, behavioral activation, and affective response to impending reward and punishment: The BIS/B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2), 319-333.
- Cloninger, C. R., & Svrakic, D. M. (2000). Personality disorders. In B. J. Sadock & V. A. Sadock(Eds),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pp.1723-1764). NY: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Clottie, M., Heimberg, R. G., Liebowitz, M. R., & Gitow, A. (1992). Perceptions of control in panic disorder and social phobia.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5), 569-577.
- Chang, E. C., Zumberg, K. M., Sanna, L. J., Girs, L. P., Kade, A. M., Shair, S. R., Hermann, N. B., & Srivastava, K. (2007).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domains of worry in a college student population: Considering the role of BIS/BAS motiv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4), 925-936.
- Chronis-Tuscano, A., Degnan, K. A., Pine, D. S., Perez-Edgar, K., Henderson, H. A., & Diaz, Y. (2009). Stable early maternal report of behavioral inhibition predicts lifetime social anxiety disorder in adolescence. *Journal of an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8(9), 928-935.
- Chorpita, B. F., & Barlow, D. H. (1998). The development of anxiety: The role of control in the early environment. *Psychological Bulletin*, 124(1), 3-21.
- Chorpita, B. F., Brown, T. A., & Barlow, D. H. (1998). Perceived Control as a Mediator of Family Environment in Etiological Models of Childhood Anxiety. *Behavior Therapy*, 29(3), 457-476.
- Davey, G. C. L. (1994). Pathological worrying as exacerbated problem-solving. In G. C. L. Davey & F. Tallis (Eds), *Worrying: Perspectives*



- on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pp.35-59).  
Chichester, England: Wiley.
- Eastburg, M., & Johnson, W. B. (1990). Shyness and perceptions of parental behavior. *Psychology Rev*, 66(3), 915-921.
- Fournier, S., Freston, M. H., Ladouceur, R., Dugas, M. J., & Guvin, M. C. (1996). *Excessive worry and anxiety in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biannual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ral Development*, Quebec City, Quebec. Canada.
- Fox, N. A., Henderson, H. A., Rubin, K. H., Calkins, S. D., & Schmidt, L. A. (2001).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behavioral inhibition and exuberance: psychophysical and behavioral influences across the first four years of life. *Child Development*, 72(1), 1-21.
- Gerlsma, C., Emmelkamp, P. M. G., & Arrindell, W. A. (1990). Anxiety, depression, and perception of early parenting: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10(3), 251-277.
- Kagan, J., Reznick, J. S., & Snidman, N. (1987). The physiology and psychology of behavioral inhibition. *Child Development*, 58(6), 1459-1473.
- Kerr, M., Lambert, W. W., Stattin, H., & Klackenberg-Larsson, I. (1994). Stability of inhibition in a Swedish longitudinal sample. *Child Development*, 65(1), 138-146.
- Kertz, S. J., & Woodruff-Borden, J. (2011). The Developmental Psychology of Worry. *Clinical Child Family Psychology Review*, 14(2), 174-197.
- Kretchmar, M. D., & Jacobvitz, D. B. (2002). Observing mother-child relationships across generations: Boundary patterns, attachment, and the transmission of caregiving. *Family Process*, 41(3), 351-374.
- Last, C., Hersen, M., Kazdin, A., Francis, G., & Grubb, H. (1987). Psychiatric illness in the mothers of anxious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4(12), 1580-1583.
- Laugesen, N., Dugas, M. J., & Bukowski, W. M. (2003). Understanding Adolescent worry: The Application of a Cognitive Mode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1), 55-64.
- Lewinsohn, P. M., Steinmetz, J., Larson, D., & Franklin, J. (1981). Depression-related cognitions: Antecedent or consequenc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3), 213-219.
- McLeod, B., Wood, J., & Weisz, J. (2007). Exam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and childhood anxiety: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7(2), 155-172.
- McWilliams, N. (1999). *Psychoanalytic case formulation*, NY: The Guilford Press.
- Meyer, T. J., Miller, M. L., Metzger, R. L., & Borkovec, T. D. (199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28(6), 487-495.
- Moore, P. S., Whaley, S. E., & Sigman, M. (2004). Interactions between mothers and children: Impacts of maternal and child anxie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3(3), 471-476.
- Muris, P., Meesters, C., & Gobel, M. (2001). Reliability, validity, and normative data of the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in 8-12-year-old-children. *Journal of Behavioral Therapy*

- and *Experimental Psychiatry*, 32(2), 63-72.
- Muris, P., Meesters, C., Merchelbach, H., & Hulsbeck, P. (2000). Worry in children is related to perceived parental rearing and attachment.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8(5), 487-497.
- Olatunji, B. O., Scottenbauer, M. A., Rodriguez, B. F., Glass, C. R., & Arnkoff, D. B. (2007). The structure of worry: relations between positive/negativ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the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1(4), 540-553.
- Parker, G., & Lipscombe, P. (1981). Influences on maternal overprotect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8(4), 303-311.
- Rapee, R., Craske, M., Brown, T., & Barlow, D. (1996). Measurement of perceived control over anxiety-related events. *Behavior Therapy*, 27(2), 279-293.
- Rey, J. M., & Plapp, J. M. (1990). Quality of perceived parenting in oppositional and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9(3), 382-385.
- Richter, J., Eisemann, M., & Richter, G. (2000). Temperament, character and perceived parental rearing in healthy adults: two related concept?. *Psychopathology*, 33(1), 36-42.
- Sanderson, W. C., Rapee, R. M., & Barlow, D. H. (1989). The influence of an illusion of control on panic attacks induces via inhalation of 5.5% carbon dioxide-enriched ai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6(2), 157-164.
- Spokas, M., & Heimberg, R. G. (2009). Overprotective Parenting, Social Anxiety, and External Locus of Control: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Relationships. *Cognitive Therapy Research*, 33(6), 543-551.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Thomasgard, M., & Metz, W. P. (1997). Parental overprotection and its relation to perceived child vulnerabilit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7(2), 330-335.
- Turner, S., Beidel, D., & Costello, A. (1987). Psychopathology in the offspring of anxiety disorders pati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2), 229-235.
- Vasey, M. W., & Dadds, M. R. (2001). *Th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of anxie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eems, C. F., Silverman, W. K., Rapee, R. M., & Pina, A. A. (2003). The role of control in control in childhood anxiety disorder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7(5), 557-568.
- Windsor, K. J., Anstey, J., Butterworth, P., & Rodgers, B. (2008). Behavioral approach and behavioral inhibition as moderators of association between negative life events and perceived control in midlif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5), 1080-1092.
- White, L. K., Degnan, K. A., Fox, N. A., McDermott, J. M., & Henderson, H. A. (2011). Behavioral Inhibition and Anxiety: The Moderating Roles of Inhibitory Control and Attention Shifting. *Journal Abnormal Child Psychology*, 39(5), 735-747.
- Zebb, B. J., & Beck, J. G. (1998). Worry versus

- anxiety: Is there really a difference? *Behavior Modification*, 22(1), 45-61.
- Zvolensky, M. J., Lejuez, C. W., & Eifert, G. H. (1998). The role of control in anxious responding: An experimental test using repeated administrations of 20% CO<sub>2</sub>-enriched air. *Behavioral Therapy*, 29(2), 193-209.
- 원고접수일 : 2012. 9. 10.  
1차 수정 원고접수일 : 2012. 10. 06.  
2차 수정 원고접수일 : 2012. 12. 19.  
게재결정일 : 2012. 12. 21.

##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Overprotection and Adolescent Behavioral Inhibition Trait on Adolescent Worry: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Control**

**Min kyoung Lee**

Department of Psychiatry  
Hanyang Medical Center

**Eunjung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determine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overprotection and behavioral inhibition, and worry were mediated by perceived control. Overprotection Scale, Behavioral Inhibition Scale, Anxiety Control Questionnaire, and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were administered to 306 high school students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e equation modeling. According to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effects of mothers' overprotection and behavioral inhibition trait on worry were mediated by perceived control.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rograms for treatment of worry should be focused on mothers' overprotection, behavioral inhibition, and cognitive vulnerability such as perceived control. Finally,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ome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mothers' overprotection, behavioral inhibition, perceived control, worry, mediating effect, adolescents*